

# 장애인의 보건 · 의료 실태

Health and Medical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요구 사항으로 뽑은 것은 의료보장으로 전체의 30.1%가 희망하였다. 기본적으로 장애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야기되고, 또한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 및 경제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 동안 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90%나 되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의 확립은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보건 · 의료실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을 줄이기 위해 장애예방사업의 강화와 지속적인 재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비용이 드는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등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문재활병원의 설치 확대와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 특화서비스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료보장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장애예방 등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의료적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7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2년만

인 1989년에 이르러 농촌 및 도시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의료보장체계를 달성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sup>1)</sup>과 보건의료기본법<sup>2)</sup>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오늘날 건강은 인간권리의 하

1)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빈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성을 제거하고 빈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도 점차 다양해졌으나, 장애인은 오랫동안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 · 의료, 사회적 측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복지분야의 소외계층에 속해 왔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당시 2008년 3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수는 2,137,226명으로 2005년 조사 당시 등록장애인수 1,699,329명에 비해 25.8% 증가한 것으로써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 산업재해, 각종 사고,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으로 장애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결과 장애발생의 원인이 후천적인 사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이 90%나 되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의 확립은 더욱 절실하며,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첫 번째 요구 사항으로 뽑은 것은 의료보장으로 전체의 30.1%가 희망하였다. 지난 2000년 및 2005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의료보장이 소득보장보다 더 높은 욕구를 보인 것은 2008년 조사의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장애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야기되고, 또한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 및 경제활동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은 평생 동안 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민영화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확보해주는 의료보장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주로 소득보장이나 복지서비스 측면에 치중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지난 해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강화 등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2008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보건 · 의료실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애인의 보건 · 의료 실태

### 1)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58.6%로 여자 41.4%에 비해 17.2% 포인트 높게 나타나 2005년의 조사결과(남자

2)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 연령 · 종교 ·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9.9%, 여자 40.1%)와 같이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가 남자의 비율이 82.0%로 가장 높았고, 간질장애는 여자의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64세가 32.0%로 2005년의 조사결과(65세 이상 32.5%, 50~64세 29.9%)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가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점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의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9.6%로 가장 높았는데, 뇌병변장애나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같은 내부장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냈고, 반면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비율이 각각 78.5%, 30.4%로 장애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2) 장애의 원인 및 장애발생시기

장애의 원인을 크게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주된 법정장애 15가지 장애유형의 장애원인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전체의 90.0%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원인 4.9%, 원인 불명 4.6%, 출생시 원인이 0.5%로 나타나 과거 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후천적 원인은 다시 질환과 사고로 분류하여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질환이 55.6%로 가장 많았고, 사고는 34.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조사결과(질환 52.4%, 사고 36.6%)와 다르게 사고의 비율은 낮아지고, 질환의 비율은 높아졌다. 이와 같이 후천적 원인이 월등히 높게 나와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보다는 질환 및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장애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장애원인을 장애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는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안면장애나 지체장애와 같은 외부장애는 사고의 비율 각각 51.3%, 5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체장애와 안면장애가 장애원인 중 사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장애가 주로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흡기장애(98.6%), 신장장애(98.5%), 간장애(96.4%), 장루·요루장애(94.3%), 심장장애(87.5%)와 같은 내부장애는 질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선천적 원인은 지적장애(28.9%), 자폐성장애(22.3%), 언어장애(21.4%)가 높았다. 출생시 원인은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자폐성장애가 4.2%로 가장 높았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자	58.5	59.5	57.1	55.8	72.3	61.8	80.7	51.8	57.4	59.3	82.0	75.4	64.9	63.2	51.3	58.6
여자	41.5	40.5	42.9	44.2	27.7	38.2	19.3	48.2	42.6	40.7	18.0	24.6	35.1	36.8	48.7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2.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0~17세	0.9	3.8	1.8	2.1	7.7	30.4	78.5	0.3	0.3	6.9	0.0	4.4	6.6	1.4	4.3	3.9
만 18~29세	2.1	1.9	1.6	1.7	5.8	26.6	18.5	6.0	4.6	3.5	0.8	1.8	8.6	0.6	11.3	4.0
만 30~39세	6.8	3.8	5.4	4.0	11.5	16.2	2.2	21.7	10.8	3.9	2.3	5.6	23.3	3.2	22.2	7.4
만 40~49세	19.4	8.0	11.9	9.6	17.8	15.5	0.1	35.2	21.7	9.1	7.0	26.5	22.2	6.9	36.2	16.7
만 50~64세	35.3	36.6	31.3	27.3	24.3	8.7	0.7	29.4	38.9	28.9	38.9	52.6	31.1	28.4	23.2	32.0
만 65세 이상	35.5	45.9	48.0	55.3	32.8	2.5	0.0	7.4	23.8	47.7	51.1	9.2	8.2	59.6	2.9	3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3. 장애 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원인	2.5	2.4	3.0	7.4	21.4	28.9	22.3	1.7	0.4	11.4	0.0	3.3	18.8	1.1	3.9	4.9
출생시원인	0.1	1.8	0.3	0.0	1.3	2.5	4.2	0.0	0.0	0.0	0.0	0.0	0.0	0.0	0.9	0.5
후천적 원인	45.6	86.9	58.6	73.7	53.3	18.5	9.1	80.9	98.5	87.5	98.6	96.4	21.4	94.3	58.1	55.6
질환	45.6	86.9	58.6	73.7	53.3	18.5	9.1	80.9	98.5	87.5	98.6	96.4	21.4	94.3	58.1	55.6
사고	51.3	8.3	35.1	13.4	8.0	9.2	1.0	13.9	1.1	1.0	1.4	0.3	57.9	4.5	19.7	34.4
원인불명	0.5	0.5	3.1	5.6	16.0	40.9	63.4	3.5	0.0	0.1	0.0	0.0	1.9	0.0	17.4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8,561	220,061	207,383	15,102	139,138	12,150	84,781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2	2,135,512

원인불명도 자폐성장애가 전체의 63.4%로 가장 높았으며, 지적장애 역시 40.9%가 장애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장애인의 장애발생 시기는 출생전 또는 출생시, 돌 이전, 돌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2005년의 95.7%보다 1% 포인트 증가한 전체의 96.7%가 '돌 이후'로 가장 많았다.

돌 이후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애발생시 연령은 어느 특정 연령층에 치우쳐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발생시기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는 40대 이후 발생 비율이 약 67.6%로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퇴행성 안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전 연령에 걸쳐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50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층에서 각종 귀 질환,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장애는 만 1~4세에 발생하는 비율이 13.4%로 높지만 청각장애와 마찬가지로 50대 이후에 더 증가하고 있다.

지적장애는 대부분 만 19세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폐성장애도 전체의 93.7%가 만 9세 이전에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정신장애는 대부분의 장애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장장애는 만 10세 이후부터 발생(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30대~60대에 걸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장장애는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 10세 이전의 발생은 2.0% 수준이고, 40대 이후에 현저히 증가하는 후천적 심혈관질환이 심장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흡기장애는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89.7%로 폐렴이나 기타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가 고령 노인인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장애는 주로 30대~60대 사이의 발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학계에서도 보고하듯이 간장애는 30~40대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 직장인들 중에 술에 의한 B형 간염바이러스, 간경변, 지방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면장애는 주로 10대~40대에 걸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화상이나 교통사고, 기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외상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장루·요루장애는 간장애와 마찬가지로 40대 이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9.8%로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및 삶의 환경이 서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하겠다.

간질장애는 주로 만 29세 이전에 발병하는 비율이 전체의 69.4%로 이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동반장애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장애유형의 장애발생시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후천적 장애발생시기: 돌 이후(연령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1~4세	5.7	3.7	2.1	5.7	13.4	23.8	64.5	0.6	0.1	1.7	0.2	0.8	8.6	0.0	3.2	6.1
만 5~9세	2.0	2.2	3.8	2.5	9.2	30.2	29.2	0.7	0.0	0.3	0.1	0.0	8.6	0.2	9.8	4.0
만 10~19세	6.4	1.7	6.9	6.4	6.7	21.3	4.3	13.2	3.7	3.9	0.9	0.0	18.1	0.4	28.9	7.0
만 20~29세	10.2	2.2	10.1	4.4	6.7	9.4	1.6	36.5	8.2	4.4	3.2	3.3	21.2	1.8	27.5	9.7
만 30~39세	14.6	3.7	9.7	6.3	10.3	6.9	0.0	22.4	20.7	5.3	5.7	12.1	12.9	7.7	13.0	11.9
만 40~49세	16.8	16.5	15.3	12.2	10.7	5.3	0.4	17.4	24.5	12.0	15.6	39.8	14.2	12.6	12.7	15.6
만 50~59세	17.9	29.3	21.6	20.8	17.3	1.1	0.0	6.0	20.5	33.9	33.7	32.3	9.9	27.7	3.8	18.4
만 60~69세	19.2	29.4	21.0	23.5	20.4	0.5	0.0	2.3	16.1	30.7	26.7	10.4	4.7	31.4	1.1	18.9
만 70세 이상	7.3	11.4	9.7	18.3	5.3	1.6	0.0	1.0	6.2	7.8	13.7	1.3	1.7	18.1	0.0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04,731	213,221	215,848	196,085	13,820	122,160	11,206	84,780	48,284	13,493	14,393	6,282	1,853	11,202	8,819	2,066,177

3) 현재 주된 장애의 치료

현재 주된 장애에 대해 장애인의 50.5%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99.8%), 간장애(98.9%), 간질장애(98.4%), 심장장애(97.3%), 호흡기장애(95.4%), 정신장애(93.8%) 등의 순으로 현재 자신의 장애

특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신장장애인의 대부분은 현재 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반면, 안면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5. 현재 주된 장애 치료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46.6	82.0	40.3	19.9	27.2	35.1	75.3	93.8	99.8	97.3	95.4	98.9	17.3	78.3	98.4	50.5
아니오	53.4	18.0	59.7	80.1	72.8	64.9	24.7	6.2	0.2	2.7	4.6	1.1	82.7	21.7	1.6	4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현재 주된 장애를 치료받는 장소로는 병·의원이 5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34.0%, 한방 병·의원 3.9%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92.6%)와 심장장애 및 장루·요루장애(82.5%)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77.1%)는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재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병의원 이용률은 0.7%로 매우 적었다.

현재 자신의 장애상태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50.8%로 가장 높아 치료를 받는다 해도 증상과 장애정도의 개선이 어려운 고착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

로는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가 33.5%였는데, 이는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장애인 자신의 생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여서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4.9%로 2005년 조사 결과(12.7%)보다 7.8% 포인트 감소했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시각장애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74.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는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가 모두 36.4%로 가장 많았다. 심장장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다.

표 6.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종합병원	23.5	54.9	38.7	21.9	58.3	27.5	18.5	22.2	55.1	82.5	67.6	92.6	70.0	82.5	55.5	34.0
재활병·의원	0.8	1.6	0.0	0.0	0.0	0.0	1.5	0.4	0.0	0.0	0.0	0.2	0.0	0.0	0.0	0.7
병·의원	66.9	35.2	58.9	75.5	22.3	35.2	14.0	77.1	44.3	17.2	31.3	7.1	18.4	16.3	41.6	56.9
보건소	2.2	2.7	0.3	0.0	0.0	0.0	0.0	0.3	0.6	0.4	0.9	0.0	4.2	1.2	0.3	1.6
한방병·의원	5.9	4.7	0.4	0.3	2.8	1.9	1.4	0.0	0.0	0.0	0.2	0.0	0.0	0.0	0.6	3.9
장애인복지관	0.1	0.6	0.0	0.0	8.4	11.1	19.2	0.0	0.0	0.0	0.0	0.0	0.0	0.0	0.3	0.8
기타	0.6	0.3	1.7	2.2	8.2	24.2	45.3	0.0	0.0	0.0	0.0	0.0	7.4	0.0	1.9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27,754	179,731	88,659	41,281	4,103	49,116	9,290	79,523	48,166	14,210	13,737	6,446	380	8,895	8,738	1,080,029

표 7.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8	15.8	1.0	1.4	7.2	4.9	25.0	0.0	14.4	36.9	10.7	0.0	21.7	6.3	21.7	4.9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	10.7	8.6	0.4	1.1	5.6	4.6	6.3	12.6	85.6	11.9	30.0	47.8	4.1	48.1	22.4	7.4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36.4	34.9	23.3	29.9	35.5	36.4	28.7	29.6	0.0	16.7	4.9	0.0	28.3	14.7	0.0	33.5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44.5	30.9	74.0	65.7	48.1	44.9	32.3	23.4	0.0	16.4	34.5	14.5	38.1	23.0	21.7	50.8
치료받기 싫어서	1.1	2.7	0.2	0.7	2.0	3.5	2.1	16.2	0.0	0.0	4.9	0.0	0.0	2.2	18.9	1.3
주위의 시선 때문에	0.0	0.0	0.0	0.0	0.0	0.0	0.0	0.0	0.0	9.3	6.4	0.0	0.0	0.0	0.0	0.0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0.3	0.1	0.0	0.0	0.4	0.5	0.9	0.0	0.0	0.0	0.0	0.0	1.5	0.0	0.0	0.2
시간이 없어서	0.5	1.5	0.9	0.4	0.2	0.0	3.3	0.0	0.0	0.0	0.0	0.0	2.4	0.0	0.0	0.5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	0.1	0.5	0.2	0.4	0.7	4.0	0.0	5.1	0.0	0.0	0.0	0.0	0.0	1.4	15.4	0.6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0.3	5.0	0.0	0.0	0.3	1.0	1.5	8.5	0.0	8.8	0.0	0.0	1.6	2.5	0.0	0.5
기타	0.3	0.0	0.1	0.3	0.0	0.3	0.0	4.6	0.0	0.0	8.7	37.7	2.4	1.8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04,363	39,424	131,400	166,102	11,001	90,963	3,040	5,257	118	396	656	69	1,805	2,461	143	1,057,198

4) 건강상태

장애인들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체의 51.9%가 '건강이 나쁘다'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25.7%, '좋다' 22.4%의 순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았는데, 특히 호흡기장애(81.5%), 심장장애(76.5%), 신장장애(75.4%), 뇌병변장애(69.7%), 간장애(64.5%)가 건강이 나쁘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응답한 장애

인은 자폐성장애가 7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적장애(50.7%), 안면장애(33.3%)의 순이었다.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여부에 대해서 전체의 75.9%가 자신의 장애상태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가 9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신장애 97.7%, 호흡기장애 97.5%, 심장장애 96.4%, 신장장애 94.2%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들이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주된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20.1%로 가장 많았고, 기타 16.7%,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11.5%, 뇌졸중 9.2%, 당뇨병 6.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표 8. 평소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좋다	5.5	0.8	4.4	4.7	7.7	18.9	34.8	5.4	0.0	0.7	0.4	2.7	13.1	2.3	2.2	5.7
약간 좋다	14.8	9.1	21.9	19.5	21.3	31.8	37.2	23.6	6.5	5.6	4.9	9.1	20.2	15.8	14.5	16.7
보통이다	27.0	20.4	24.9	28.6	24.9	24.0	19.8	28.1	18.0	17.3	13.1	23.7	37.7	27.3	24.8	25.7
약간 나쁘다	36.9	35.5	37.1	34.2	34.3	20.7	6.7	30.5	38.9	41.2	39.4	30.6	22.0	35.7	39.1	35.1
매우 나쁘다	15.7	34.2	11.7	13.0	11.8	4.7	1.6	12.4	36.5	35.3	42.1	33.9	7.0	18.9	19.4	1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10.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57.1	41.1	55.7	55.9	43.5	41.0	49.4	42.6	36.8	53.4	50.9	52.3	44.8	46.7	32.8	52.7
아니오	42.9	58.9	44.3	44.1	56.5	59.0	50.6	57.4	63.2	46.6	49.1	47.7	55.2	53.3	67.2	4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11.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11.6	15.3	9.1	9.8	16.9	8.4	7.1	6.0	32.2	17.9	13.5	38.0	12.4	18.8	16.0	11.6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0.7	0.8	0.0	0.0	0.0	0.0	0.8	0.0	0.4	0.0	0.3	0.7	1.4	1.2	2.0	0.5
건강보험 건강검진	87.2	83.9	89.2	90.0	81.4	90.0	90.7	94.0	67.1	82.1	86.2	61.3	86.1	79.2	82.0	87.3
기타	0.5	0.0	1.6	0.1	1.6	1.6	1.3	0.0	0.4	0.0	0.0	0.0	0.0	0.8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646,265	90,152	122,474	116,031	6,576	57,440	6,084	36,149	17,782	7,797	7,327	3,408	980	5,306	2,916	1,126,687

리나라 4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앓고 있었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 적합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여부에 대해서 전체의 52.7%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57.1%), 청각장애(55.9%), 시각장애(55.7%), 심장장애(53.4%), 간장애

(52.3%) 등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율이 높았고, 지적장애(59.0%), 뇌병변장애(58.9%), 정신장애(57.4%) 등은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8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11.6%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94.0%)와 자폐성장애(90.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장애(38.0%)는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 외래 치료가 80.9%로 가장 많았는데, 신장장애의 경우 신장이식을 받지 않은 신장장애인의 콩팥을 대신해줄 수 있는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주 3회 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래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폐성장애는 71.9%가 외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폐성장애는 병원의 외래 치료보다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의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외래 치료 경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장애상태 치료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를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전체의 45.8%가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장애상

표 9.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74.7	90.6	74.4	75.8	64.6	44.6	31.3	97.7	94.2	96.4	97.5	78.2	47.2	81.9	99.0	75.9
아니오	25.3	9.4	25.6	24.2	35.4	55.4	68.7	2.3	5.8	3.6	2.5	21.8	52.8	18.1	1.0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12. 최근 2주간 외래치료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47.0	46.6	44.0	42.4	34.5	30.2	28.1	46.2	80.9	54.4	56.3	50.2	30.1	50.7	41.2	45.8
아니오	53.0	53.4	56.0	57.6	65.5	69.8	71.9	53.8	19.1	45.6	43.7	49.8	69.9	49.3	58.8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태 치료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를 받은 횟수는 전체의 84.5%가 5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횟수는 2.7회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의 69.1%가 6~10회로 가장 외래 치료 횟수가 많았고, 신장장애의 전체 외래 치료 평균 횟수가 5.0회로 가장 많았다. 앞서 살펴본 신장장애의 외래 치료 경험 비율과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2주간 받은 외래 치료의 주된 비용부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이 7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22.7%, 산재보험 1.7%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80.9%)와 장루·요루장애(80.6%)가 비용부담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65.1%)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2주간 받은 외래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금액은 50만원 미만인 81.6%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본인부담금액은 4만 4천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170.9천원)와 신장장애

표 13. 최근 2주간 외래치료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회 이하	84.6	86.5	85.4	91.6	93.9	96.1	95.5	95.6	30.0	87.7	91.5	98.4	90.7	90.0	95.4	84.5
6~10회	13.3	11.7	13.9	6.5	6.1	3.2	3.0	4.2	69.1	9.8	6.7	1.6	7.5	9.2	4.3	13.7
11~15회	1.8	1.7	0.7	1.9	0.0	0.7	1.5	0.2	0.9	1.4	1.8	0.0	0.0	0.8	0.2	1.5
16회 이상	0.3	0.1	0.0	0.0	0.0	0.0	0.0	0.0	0.0	1.1	0.0	0.0	1.8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평균회수	2.8	2.6	2.7	2.4	2.0	1.8	1.9	1.5	5.0	2.7	2.3	1.5	2.7	2.4	1.9	2.7

표 14. 외래치료 이용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국민건강보험	76.4	71.8	72.7	80.9	71.6	44.9	79.0	34.7	62.3	74.4	71.3	70.9	72.1	80.6	43.1	72.2
자동차보험	0.3	0.2	0.0	0.5	0.7	0.0	0.0	0.0	0.0	0.0	0.5	0.6	0.0	0.5	0.5	0.2
산재보험	2.3	2.0	1.6	0.1	0.0	1.2	0.0	0.0	0.0	1.5	2.9	0.8	0.0	0.6	0.0	1.7
의료급여	18.3	21.4	21.2	16.5	23.3	47.3	14.3	65.1	33.0	20.1	23.8	24.3	24.5	15.2	52.2	22.7
민간의료보험	0.0	0.0	0.0	0.0	0.0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전액자비	1.0	1.6	3.9	0.7	1.0	4.5	6.7	0.1	0.1	1.3	1.0	1.0	0.0	0.0	2.5	1.4
기타	1.7	3.0	0.7	1.4	3.5	0.7	0.0	0.0	4.6	2.7	0.4	2.4	3.4	3.1	1.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표 15. 외래치료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단위: %, 명,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84.3	71.1	84.5	82.0	75.4	82.5	78.7	94.6	61.2	67.4	69.8	43.8	91.0	76.0	83.5	81.6
50~99만원	9.6	15.3	7.0	11.4	8.0	8.7	8.8	4.0	4.1	16.2	12.9	8.8	1.8	8.7	9.7	9.7
100~149만원	2.1	6.5	1.6	2.3	5.9	5.1	6.1	0.5	2.1	5.3	8.5	7.2	5.0	4.0	1.5	2.7
150~199만원	0.8	3.7	0.2	2.1	5.1	0.4	1.0	0.0	4.6	4.6	5.0	8.8	2.1	3.3	2.1	1.4
200~249만원	1.0	0.8	1.9	1.2	1.0	2.4	0.0	0.0	12.5	2.3	1.6	3.9	0.0	2.8	0.0	1.6
250~299만원	0.9	0.0	0.0	0.0	0.6	0.0	1.3	0.0	4.7	1.3	0.4	5.5	0.0	0.7	0.8	0.7
300~349만원	0.6	0.5	2.2	0.0	0.0	0.0	1.0	0.9	4.3	0.2	0.7	6.3	0.0	1.6	0.0	0.8
350~399만원	0.0	0.2	0.0	0.0	0.0	0.0	0.0	0.0	0.8	1.1	0.4	1.3	0.0	0.5	0.0	0.1
400~499만원	0.2	1.2	0.1	0.3	1.7	0.0	1.3	0.0	2.0	0.4	0.8	4.7	0.0	0.0	0.8	0.4
500만원 이상	0.6	0.8	2.5	0.6	2.3	0.8	1.8	0.0	3.7	1.3	0.0	9.7	0.0	2.2	1.5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32,388	102,140	96,827	87,996	5,205	42,351	3,471	39,127	39,080	7,950	8,102	3,270	656	5,759	3,662	977,984
평균금액	31.8	50.6	97.2	40.0	64.8	29.4	50.7	12.5	104.2	70.5	49.0	170.9	19.0	61.3	33.1	44.3

(104.2천원)의 외래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6) 입원 경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나 건강을 위해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19.6%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의 입원경험이 5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47.0%, 신장장애 44.0%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횟수는 전체의 97.8%가 5회 이하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나 건강을 위한 입원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횟수는 1.6회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와 안면장애는 100.0% 5회 이하의 입원 경험이 있었고, 입원 평균횟수가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간장애로 평균 2.8회였다.

최근 1년간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수는 전체의 71.7%가 30일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입원일수는 37.7일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경우 입원일수

가 101일 이상이 37.8%(평균입원일수 114.8일)로 장기입원 중인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입원으로 지출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은 전체의 42.5%가 5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본인부담금액은 175만 3천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가 외래 치료와 마찬가지로 평균 본인부담금액이 1천 15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6.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19.0	26.7	15.1	14.6	18.4	9.5	9.2	25.7	44.0	35.8	47.0	50.4	21.1	29.4	21.9	19.6
아니오	81.0	73.3	84.9	85.4	81.6	90.5	90.8	74.3	56.0	64.2	53.0	49.6	78.9	70.6	78.1	8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17. 최근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회 이하	97.9	97.8	99.2	99.0	98.9	96.1	100.0	97.9	96.8	97.7	92.3	91.7	100.0	89.2	93.6	97.8
6회~10회	1.2	2.2	0.1	0.2	1.1	3.9	0.0	1.4	2.5	1.2	5.1	4.9	0.0	8.9	4.4	1.5
11회~15회	0.1	0.0	0.0	0.8	0.0	0.0	0.0	0.7	0.0	0.6	1.0	1.4	0.0	0.0	0.0	0.2
16회~20회	0.0	0.0	0.7	0.0	0.0	0.0	0.0	0.0	0.0	0.5	0.0	1.4	0.0	0.0	0.0	0.1
21회~25회	0.7	0.0	0.0	0.0	0.0	0.0	0.0	0.0	0.7	0.0	0.2	0.6	0.0	1.9	0.0	0.4
26회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0.0	0.0	0.0	2.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평균회수	1.5	1.6	1.7	1.4	1.4	1.5	1.4	1.6	2.0	1.9	2.4	2.8	1.3	2.4	3.3	1.6

표 18. 최근 1년간 입원일수

(단위: %, 명, 일)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30일 이하	74.1	66.7	75.6	80.4	79.4	75.2	87.7	39.5	73.9	75.5	62.3	64.2	91.8	73.5	76.2	71.7
31~60일	13.4	16.1	11.7	11.9	14.3	6.2	5.9	14.0	12.7	16.1	17.3	17.0	3.7	18.6	12.8	13.4
61~100일	6.6	4.0	11.8	4.5	2.9	10.1	6.4	8.8	9.2	4.3	5.0	9.0	4.6	1.6	8.6	6.8
101~200일	3.6	6.5	0.4	1.6	3.4	5.9	0.0	15.6	4.1	3.8	5.1	7.1	0.0	6.2	1.2	4.4
201일 이상	2.3	6.6	0.5	1.7	0.0	2.7	0.0	22.2	0.2	0.2	10.4	2.7	0.0	0.0	1.2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평균일수	31.1	47.8	27.1	26.2	25.6	40.1	16.9	114.8	28.0	26.1	65.9	42.0	14.7	26.8	30.3	37.7

표 19.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41.9	34.7	36.9	47.3	38.4	65.8	44.2	75.5	31.3	34.9	37.9	19.3	38.9	34.6	44.2	42.5
50~99만원	18.6	15.3	12.6	16.5	19.0	14.1	27.9	7.5	14.8	18.4	22.5	10.2	12.0	15.3	15.7	16.6
100~149만원	11.9	14.0	16.3	9.6	4.8	5.8	13.6	5.6	13.0	6.3	9.9	11.1	16.7	11.3	13.4	11.7
150~199만원	6.1	5.7	5.5	10.3	11.9	11.8	4.1	1.8	2.6	6.8	5.8	9.9	4.3	1.8	2.5	6.1

〈표 19〉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200~249만원	3.1	2.0	7.6	3.3	4.5	0.0	0.0	0.0	7.5	3.9	5.0	5.7	0.0	6.6	3.9	3.4
250~299만원	1.4	2.6	3.2	0.0	2.5	0.0	0.0	1.4	3.8	2.2	1.7	4.4	0.0	2.9	4.7	1.8
300~349만원	3.3	6.9	1.2	4.2	6.2	0.0	2.3	3.0	6.7	3.8	3.9	4.9	1.7	7.5	5.2	3.8
350~399만원	1.3	2.7	4.7	1.9	0.9	0.0	5.2	0.0	2.8	2.1	1.7	2.7	0.0	0.0	0.0	1.8
400~499만원	2.3	1.5	5.9	2.3	0.7	0.0	0.0	3.7	2.9	4.7	4.2	1.7	0.0	8.8	3.9	2.6
500만원 이상	10.3	14.6	6.2	4.5	11.2	2.5	2.7	1.4	14.4	17.0	7.4	30.1	26.3	11.2	6.5	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9,927	33,306	29,839	2,757	13,339	1,135	21,757	21,249	5,176	6,717	3,263	460	3,335	1,944	417,272
평균금액	175.4	205.9	155.8	115.7	159.0	58.7	90.9	63.0	234.0	326.1	152.6	1,015.4	212.6	236.8	141.4	175.3

최근 1년간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은 전체의 60.3%가 국민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22.3%, 자동차보험 7.8%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77.3%)가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74.5%)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0. 입원시 주된 비용부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국민건강보험	62.5	66.4	68.5	60.6	67.6	31.7	63.6	21.3	60.2	63.8	61.2	68.4	67.2	77.3	48.9	60.3
자동차보험	10.2	4.0	6.5	10.5	6.8	10.7	1.5	3.4	0.0	3.8	1.1	2.1	0.0	4.3	7.6	7.8
산재보험	5.2	3.5	0.5	0.0	2.9	2.9	4.1	0.0	0.0	1.6	11.5	0.8	0.0	0.4	3.7	3.6
의료급여	16.3	20.0	13.8	20.3	19.0	50.7	28.1	74.5	33.3	23.2	23.5	24.0	13.9	13.7	35.3	22.3
민간의료보험	1.3	1.0	0.8	1.6	0.0	0.0	0.0	0.0	0.0	0.7	0.0	0.0	0.0	0.0	1.6	1.0
전액자비	0.6	0.8	0.2	1.1	0.0	3.9	2.7	0.0	2.9	1.2	1.8	3.8	6.1	1.3	1.4	0.9
기타	3.9	4.2	9.7	6.0	3.7	0.0	0.0	0.8	3.6	5.6	0.9	1.0	12.8	2.9	1.5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15,067	58,569	33,306	30,261	2,786	13,339	1,135	21,757	21,249	5,229	6,761	3,284	460	3,335	1,944	418,482

7) 병의원 진료 박탈 경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장애나 건강을 위해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22.1%가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13.8%, '교통이 불편해서' 12.8%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82.8%)와 안면장애(78.6%)가 특히 '돈이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 두 장애유형의 경우 간이식이나 피부이식 등 수술이나 치료시 특수 검사비 및 특수 시술비용 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향후 필요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29.7%가 '재활전문병원'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차병원 재활의학과 21.4%, 방문재활치료 13.6%, 장애특화서비스 13.2%, 요양병원 13.2%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각종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등)를 전문으로 하는 재활전문 병원에 대한 응답이 각각 36.5%, 30.2%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는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요양병원(33.6%)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는 장애인 치과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화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각각 46.3%, 33.7%로 가장 많아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의료

표 2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돈이 없어서	57.1	52.2	66.3	54.0	73.9	47.4	54.1	49.4	75.4	68.4	65.6	82.8	78.6	66.6	77.9	57.3
병의원 등에 예약이 힘들어서	2.5	1.4	0.0	2.3	1.7	0.0	0.0	0.0	0.4	1.1	0.0	0.0	5.6	2.1	0.0	1.9
교통이 불편해서	12.8	20.3	10.7	9.5	1.9	8.7	1.6	12.9	6.8	12.9	17.7	6.6	1.6	12.2	6.5	12.8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원이 안 열어서	16.7	4.1	9.1	19.1	6.8	8.6	4.3	9.6	14.3	8.2	4.9	3.7	5.8	4.7	1.7	13.8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0.6	2.4	3.4	3.0	4.9	3.0	7.9	3.4	1.0	3.9	2.7	0.0	0.0	2.1	1.2	1.5
증상이 가벼워서	8.8	2.8	4.0	9.0	2.4	9.5	6.1	3.2	0.8	4.6	5.9	0.0	8.5	2.5	5.8	7.3
기타	1.6	16.8	6.5	3.2	8.4	22.8	26.1	21.4	1.2	0.9	3.2	6.9	0.0	9.7	6.9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84,783	55,534	45,777	37,208	2,353	17,340	1,983	9,250	6,238	3,080	2,694	912	625	1,969	2,187	471,933

표 22.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3차병원 재활의학과	21.7	20.3	25.8	21.6	19.3	13.3	8.7	13.9	28.0	30.0	31.4	32.4	20.7	27.4	25.4	21.4
재활전문병원	36.5	30.2	20.1	21.4	27.2	18.4	15.5	18.2	20.1	18.1	14.1	15.0	28.9	16.8	12.9	29.7
요양병원	8.6	15.0	14.2	19.2	11.9	12.6	3.6	33.6	11.7	14.4	16.9	10.7	5.0	13.9	16.9	12.3
낮병원 또는 외래에서의 재활치료	3.9	3.3	3.9	4.0	3.8	4.6	5.7	7.0	3.4	3.5	4.7	4.4	2.0	3.7	4.9	4.0
방문재활치료	13.4	20.8	12.3	12.0	12.7	13.5	12.8	7.7	14.0	10.5	15.4	6.2	7.6	12.8	7.2	13.6
장애인 특화서비스	9.7	5.4	18.0	16.5	19.7	33.7	46.3	16.1	14.3	13.9	9.5	18.5	25.8	14.9	25.7	13.2
기타	6.1	5.0	5.6	5.4	5.3	3.8	7.5	3.4	8.6	9.7	8.0	12.7	10.1	10.4	7.1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1,847	218,638	218,715	207,024	15,005	139,081	12,302	84,738	48,052	14,607	14,309	6,514	2,185	11,356	8,859	2,133,232

기관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 3. 정책적 함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실태는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난 2005년에 이어 2008년 조사에서도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후천적 원인 중에서도 사고의 비율은 줄고 질환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2008년 조사결과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장애발생 위험률이 높은 질환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사업의 강화

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의료적인 처치가 끝난 후에 더 이상의 의료적인 개입이 있어도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장애로 인정하였으나, 지난 2003년 장애법주의 확대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가 대거 포함됨에 따라 의료적인 처치가 진행 중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발생 이후 장애가 더욱 심해질 수 있거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전체 장애인의 36.1%가 65세 이상 노인 계층으로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증진하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등의 내부장애인의 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고통이 심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드는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에서 재활전문병원, 3차병원 재활의학과, 방문재활치료 등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재활병원수와 재활의학전문의가 장애인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기타 사회활동을 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은 신체기능의 향상과 건강유지이다. 계속해서 각종 질환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한 장애예방을 위해서라도 전문재활 병원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증의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같은 장애인들은 장애특성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가 힘들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나 이동의 불편, 치과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은 치료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특화서비스가 마련되어 장애인이 의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료보장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장애 예방 등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의료적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문**